

대중적인 역사책들을 보며

유장근

경남대 교수·사학

책방에 가거나, 신문이나 출판관계 잡지를 보면,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다. 그 중에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역사와 관련된 책도 적지 않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검은 활자 투성이었던 예전 책과는 달리, 여러가지 사진이 들어가고 활자도 크고 판형도 타블로이드판까지 나와 보기도 좋고 읽기도 쉽게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런 그릇에 맞게 제목이나 내용도 신선하다. 예전의 근엄투와는 달리 '이야기' '알기 쉬운' '시민을 위한' 등의 수식어를 붙이거나, '우리 역사의 여러 모습'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쉽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책제목들이 눈에 띈다. 내용도 이제 제도사나 사상사·정치사 등 전통적인 것보다 좀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깝거나 종래 눈길을 제대로 주지 못했던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생태사와 관련된 책까지 출간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의 폭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우선 좋은 현상이다. 이런 책들에서 나는 역사연구의 대상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점, 연구자의 층도 그만큼 두터워졌다는 점, 연구방법도 다양해졌다는 점, 대중들의 관심도 유례없이 높아졌다는 점, 전문연구자들이 그들과 호흡하고 있다는 점, 인접 학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여기에 출판인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게 된다. 물론 경제상황의 호전이나 비디오 매체의 영향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역사학이 그동안 소홀히 한 대중들을 본격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균형잡힌 역사이해를 위해 매년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화두는 곧잘 꺼내지만,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그 작업이 진척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간행된 대중적인 역사책을 통해 우리는 과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좀더 가까이 다가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와 남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있다.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대중적인 역사서를 내놓게 된 지적 풍토는, 물론 90년대 한국사회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데에는 탄실한 학문적 토대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좀더 진지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역사의 대중화는 자칫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의 지적 사조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지성계는 과거 중국에 크게 의존하였고, 20세기에는 일본과 미국에 다시 자양분을 대고 있다. 또 최근에는 유럽 학계의 영향도 만만치 않다. 물론 다양한 문화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성과와 이론들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수용 자체가 아니라 왜 필요한가 하는 목적에 있다. 현대 한국이 처한 역사적 상황을 시야에 넣지 않는다면, 외국학계의 아류가 될 위험이 있다.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면 대중적인 역사책은 한국 사회의 인문학이 추구하는 목적에 좀더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시평 2 **전생 신드롬, 그 환상과 환멸 사이**—한원균
3 **미화된 인생고백, 과연 진실한가**—김기태

특집/뉴미디어 4 **국내 최고의 첨단 정보를 꿈꾼다**
시대, 책정보의 5 **정보화시대의 전초기지, 대학도서관**
변화 6 **몸으로 체험하는 '꿈의 도서관'**
7 **흐르는 책정보 '홈페이지'에 모은다**
8 **정보의 바다에서 책정보 사냥을**

출판화제 10 **개별작품 '자세히 읽기'로 집중조명**
11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공해들**

학제의 시간 12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외**
13 **《고양이 대학살》 《성애의 사회사》**

문학화제 14 **노벨상 수상작가 심보르스카의 작품세계**—정병권

도서관 소식 15 **제34회 전국도서관 대회 개최**

책이 있는 에세이 16 **삶의 갈피마다 찾아드는 '맛난' 만남**—정민

재미있는 기획산책 17 **애버빌 출판사의 '하루 아티스트' 시리즈**—장익순

책과 사상 18 **'항상 이미' 있는 무의식의 발견**—박찬부

해외신간 리뷰 20 **존 배로 《교묘한 우주The Artful Universe》**—김동광

책갈피 산책 20 **조상원의 《법이 뭐길래》를 읽고**—한승현
21 **다카사키의 《조선의 흠이 된 일본인》을 읽고**—유순하

출판계 소식 22 **출판인들 가을 맞아 수상 잇따라·외**

서평 24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윤장섭
박찬부 《현대정신분석 비평》—김육동
25 **김상한 《해체론시대의 철학》**—이현복
26 **사이드 《권력과 지성인》**—권택영
소진철 《한국전쟁의 기원》—박상섭
27 **파커 《대폭발과 우주의 탄생》**—박창범

이 책 그 사람 28 **《쥐들이는 화가》 펴낸 이호백씨**
《억울한 세금, 내지 맙시다》 펴낸 윤중훈씨
29 **《서양미술사 100장면》 펴낸 최승규씨**
《역사를 위하여》 펴낸 강만길 교수

새책 흐름 30 **도서관학에서 정보학으로 외 / 인문·교양**

32 **새책 속으로**

36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이중환

표지/김흥진(인터넷의 출판사 홈페이지/관련기사 7, 8면)